

시청자위원회 회의록(2021년 10월)

일시	2021.10. 20. 수. 오후 5시	장소	광주MBC 회의실
참석자	위원회	김수형, 김요수, 류한호, 박수민, 양초룡, 이상석, 정은진, 최영호(8명)	
	회사	김낙곤 사장, 황한영 경영인프라본부장, 윤행석 콘텐츠본부장, 박수인 시사보도본부장(4명)	

■ 회의 내용

- 황한영 경영인프라본부장 : -성원이 됐으므로 시작하겠다. 오늘은 녹화를 하기 때문에 말씀하실 때 마이크 버튼을 눌러주시고 말씀을 해주셔야 녹화가 된다. 위원장님께서 진행해주시겠다.
- 류한호 위원장 : -2021년 10월 광주MBC 시청자위원회를 시작하겠다. 그동안 코로나19로 인해 대면 회의를 오랜만에 하게 됐다. 그러다 보니 위원회를 구성한 지 여러 달 됐는데 서로 익숙하지 않기도 하다. 대면 회의를 하고 상당히 오랫동안 쉬고 있었던 영상 촬영을 진행하게 됐다. 우리 시청자위원회 위원님들 중에서 모두가 코로나19를 잘 피해서 건강하게 지내시니 다행이다. 지난 몇 달 사이에 광주MBC에는 상당히 이런저런 변화와 실적이 있었다. 오늘도 생산적인 의견제시를 통해서 좀 더 시민들의 삶에 가까이에 다가가고 삶의 질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되는 의견을 많이 제시해주길 바란다. 그걸 통해 우리 역할도 하게 되고 광주MBC도 발전할 수 있다. 구성원들이 지역사회에 대한 강한 책임 의식을 가지고 할 수 있도록 부추기고 격려하는 시간이 되길 바란다.
- 김낙곤 사장 : -코로나 위기 속에 시청자위원회 대면 회의가 순연됐다. 위원님들의 다양한 의견과 대안 제시를 통해 보다 성숙한 방송을 만들 수 있는 기회를 많이 놓친 것 같아 아쉽다. 시청자위원회는 위드 코로나 시대를 맞아서 되도록이면 대면으로 개최하도록 노력하고 위원님들 말씀을 방송에 담아 시청자에게 전달하는 프로그램으로 다시 편성하기로 했다. 아무쪼록 공영방송 광주문화방송이 지역에 의미 있는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조언과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 류한호 위원장 : -오늘 시청자위원회는 주요 업무, 의견제시, 보직간부 답변 순서로 진행하겠다. 업무 보고를 진행해달라.
- 윤행석 콘텐츠본부장 : -콘텐츠본부 업무 보고를 말씀드리겠다. 9월 1일 광주디자인비엔날레 개막식이 있었다. 개막식을 유튜브 라이브 방송했고, 텔레비전 방송도 했다. 2019년부터 무등산권지오마라톤대회를 시작했는데 코로나로 진행이 안 되기 때문에 무등산권지오토론회와 지오펀처로 바뀌어서 화순과 담양에서 두 차례 가졌고 지역 두 곳을 탐방하는 트레일을 실시했다. 광주관광재단과 공동으로 진행하는 <풍류달빛공원> 프로젝트가 있다. 유명 트로트 가수의 스승을 주인공으로 제작했다. <문화콘서트 난장> 담양편 특집을 10월 14일에 제작했다. 광주광역시, 남구, 화순군과 공동으로 정율성 선생을 기리는 정율성동요경연대회를 10월 15일에 제작했다. 수상실적이 몇 가지 있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선정하는 이달의 좋은 프로그램으로

영광 출신으로서 일본 성리학의 아버지로 불리는 수운 강항 선생을 다룬 다큐드라마 <간양록>과 장애인 직장인들이 일반인들과 똑같은 동료라는 것을 보여주는 직장인 힐링 다큐 <오늘도 출근>이 수상을 했다. 그리고 <오늘도 출근>은 시즌2를 제작 중이다. 라디오 프로그램으로 광주MBC와 대구MBC 공동기획으로 <김광석이 김정호를 만났을 때>를 기획을 했다. 양림동 스튜디오에서 공동 생방송으로 하여 이달의 좋은 프로그램 공동 수상을 했다. 계획을 말씀드리겠다. <정오의 희망곡> 특집방송으로 재즈 나주 블루스라는 프로그램을 이번 주 토요일에 나주혁신도시 호수공원 무대에서 제작할 예정이다. UHD 특집 다큐가 여러 편 제작 중인데 <마한>이 11월 말에 방송될 예정이고, 공간에 대한 새로운 생각, 새로운 디자인, 재구성을 다루는 <리플레이스>라는 다큐가 12월초에 편성될 예정이다. <오늘도 출근> 시즌2는 12월 중에 편성될 예정이다. <핑크피쉬>라는 다큐멘터리를 몇 년간 했는데 그것과는 다른 새로운 파생 다큐멘터리가 <레드디쉬 김치>다. 2년간 제작이 이뤄지고 있다. 올해는 예고 성격의 <트레일러>라는 것을 방송하고 내년까지 4편이 방송될 예정이다. 그리고 국제 한국어 말하기 대회다. 5.18 관련하여 외국인 20명이 예심을 통과하여 다음주 10월 27일 공개홀에서 비대면으로 유튜브 중계방송 예정이다. 곡성에서 하는 힐링음악축제를 10월 29일 계획할 예정이다. 유튜브 채널로 제작하고 있는 <전설의 타이거즈>가 있는데 추억의 총장축제와 결합해서 <어게인 1983 타이거즈>가 11월 중에 녹화 예정이다.

- 박수인 시사보도본부장 : -빅데이터를 활용한 뉴스가 언론진흥재단 공모에 선정이 돼서 제작 지원을 받아 제작하고 있다. 코로나19 전후해서 SNS와 언론 기사, 기사의 댓글에 나타나는 키워드를 분석해서 교육과 경제 등에 나타나는 변화를 분석하고 있다. 수요일 <뉴스데스크>에서 리포트 처리하고, 세종대학교 연구소장 교수께서 목요일 <뉴스투데이>에 출연하여 심층적으로 분석하는 코너를 한다. 오늘은 문화 분야에 나타나는 변화를 데이터 작성하고 있다. 학동 재개발구역 참사에 대해 몇몇 책임 당사자들이 기소가 되어 재판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다. 수사 과정에서 미진했던 부분을 계속 지적하고 있다. 내년 대선을 앞두고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 호남지역 경선 토론을 실시했다. 광주 전남 지상파방송이 공동으로 했다. 재활용 쓰레기 불법 매립 관련하여 작년 초에 보도를 한번 했다. 남구지역에서도 같은 현상이 벌어지고 있어 취재하여 보도했다. 이게 왜 반복될 수밖에 없는가에 대해 인력 구조뿐만 아니라 감시체계가 작동하고 있지않는 구조적인 문제까지 조사하여 보도하고 있다. <윤근수의 시사분석>에서는 계속 이슈가 되고 있는 대장동 문제 관련하여 재개발문제, 지역개발문제, 광주도 계속해서 아파트 중심도시가 되고 있는 상황 등 그리고 도시계획에서 어떤 문제점이 있었는가 집중해서 시리즈로 지적했다. 선정 지구 관련해서도 초과 이익이 발생할 확률이 높는데 거기에 대해 어떤 대책이 마련되고 있는지 점검하는 코너가 있었고, 민주당 경선 결과를 분석하는 것도 있었다. 계획은 창사 특집프로그램을 제작하고 있다. 10월 24일부터 매주 5회 일요일 아침 방송된다. 제목은 <2030 호남의 미래지도>다. 인공지능과 에너지를 중심으로 이 분야의 전국적인 명성을 얻고 있는 전문가를 초청해서 강연하는 프로그램이다. 공개홀과 메타버스를 접목해서 제작한다. 지금 2부 녹화를 하고 있다. 이금주 태평양전쟁유족회 회장님께서 일제강제동원 피해자이다. 일본에 사과를 촉구하고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최초 시작이 되었던 인물이다. 일제강제동원 피해자의 어머니

로 불리는 분인데 이분의 삶을 통해 그동안 어떻게 이루어졌나, 전망 등을 다룬 다큐멘터리를 홍진선 부장이 제작 중이다. 요즘 최대 관심은 위드 코로나 시대에 어떻게 진입할 것인가인데, 뉴스에서도 일상 회복이 어떤 단계를 거쳐 진입하고, 새로운 방역체계 등 언론에서 어떤 부분에 관심을 가져야할지 관심을 갖겠다.

○ 류한호 위원장 : -콘텐츠, 시사보도 관련해서 보고 내용을 들어보니 포스트 코로나 시대가 열리는 것이 아닌가 싶을 정도로 다양하게 보여줬다. 그동안 수상의 성과도 있었다. 좋은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 같다. 업무 보고 관련해서 질문이나 의견이 있으면 제시해달라.

○ 이상석 위원 : -아쉬운 게 하나 있다. 올해가 사실 지방자치 부활된 지 30주년이다. 이 30주년에 대한 이야기가 없어서 아쉽다. 연말이 다가오고 대선이 다가오는데 그때 되면 다 파묻히게 된다. 또 하나는 재활용 쓰레기 불법매립은 이게 30년 전에도 똑 같았다. 맨날 하는 타령이 지방자치에는 돈이 없다고 하는데, 실제 돈이 없는 것인가. 모 자치단체를 보니 500억대 돈이 있는데 중앙정부에만 돈을 보내 달라고 악을 쓰는 게 지방자치 현실이다. 매년 지방자치는 돈이 없다, 실제로 기업 같이 마른 수건을 짜내서 주민들에게 봉사하느냐 이걸 확인하는 작업이 필요한 게 아닌가. 현안에 대한 진단도 되지만 대응을 만드는 부분에 있어서 예산에 대한 부분, 정책에 대한 부분을 해야 하는데 그런 부분을 보면 방송이 거기까지 가는데 시간적 제한이 있는지 원래 시스템이 보수적인지 모르겠다. 예산이나 정책을 다뤄보는 걸 본 적이 없다. 현상에 대한 진단만 한다. 자치분권을 한다기에 유심히 봤다. 중앙예산을 보신 분이나 경제학자가 자치분권을 얘기하는데 지방예산을 아는 사람이 나와서 지방예산에 대한 이야기 그러면서 분권 얘기하는 걸 못 들어봤다. 서울로부터 무조건 독립만 하는 게 분권인지 이런 것들 등 많은 고민을 해봤으면 한다.

-아나운서실에서는 우리말 쓰기를 많이 하는데 외래어가 일상이 되어있다. 펜데믹, 위드 등 못 배운 사람, 노령자를 고려하지 않고 너무 일반화해서 쓰고 있다. 출연자들도 그렇고 뉴스 진행하는 분도 그렇고 보여주는 걸 고민해서 하는 자극이 필요한 게 아닌가 싶다.

○ 김요수 위원 : -광주에서 중요한 사업으로 2년 전에 인공지능집적단지 조성사업이 왔다. 지금 이 건이 어디까지 왔는지, 혹은 앞으로 어느 방향으로 가야 하는지, 어디로 가고 있는지. 100건의 MOU를 하면서 여러 퍼포먼스는 있었으나 사업이 2년이 다 돼가는데 그 과정을 점검해보는 것, 그다음에 이게 광주의 먹거리리에 있어서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지금 정부에서는 뉴딜사업이란 이름으로 인공지능의 다른 이름을 쓰면서 많이 흔들리고 있다. 지난여름에도 이용섭 시장이 휴가를 반납하고 과기부 장관을 만나고 갈 정도로 급박한 일들이 많이 있다. 전혀 알 수 없는 미궁으로 가고 있지 않나 생각이 든다. 이거에 관련된 심층취재가 있으면 어떨까 한다.

○ 류한호 위원장 : -인공지능산업 중심도시 광주 잘 가고 있는지 점검해보라는 제안이었다.

○ 정은진 위원 : -창사특집 <2030 호남의 미래지도> 기대가 된다. 인공지능에 대한 이야기도 나왔지만 올 11월달에 COP 26차 회의가 열리고 거기에 제출하기 위해서 광주의 목표를 결정해서 어제 발표를 했다. 그럼 광주는 전 세계적으로 2050 탄소중립 목표에 앞서서 5년 앞당겨 2045 탄소중립 목표를 작년에 서명을 했다. 그것을 위한 이행계획이 수립이 되어야 하는데 아직까지 구체적인 내용은 발표되지 않고

있다. 광주MBC에서 시와 에너지를 가지고 창사특집 프로그램을 마련한다면 2045년 그 같은 목표가 정말로 달성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행 과정에 대한 검토 이 부분을 촘촘하게 기획을 해주면 좋겠다. 일례를 들어서 작년에 발표했을 때만 보면 2045년까지 수소연료전지 비중이 너무 많았다. 수소연료전지가 어차피 천연 가스에서 얻는 것이라면 탄소가 발생하는 것인데 전 세계적으로 LNG 가격이 폭등하고 있는데 수소연료전지 비중을 어떻게 조정할 것이며, 조정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구체적인 계획이 있는지 좀 촘촘한 검토가 필요하다. 전체 비중을 어떻게 조정할 것인가 구체적인 계획이 있는지 좀 촘촘한 검토가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 2030 미래지도를 그림과 동시에 지금 추진하는 계획들의 문제점들 그리고 개선점을 촘촘하게 진단해주면 좋겠다. 이 부분에 관련하여 기후위기비상행동에 115개 광주지역 시민단체가 참여하고 있는데 매주 금요일마다 기후파업을 진행하고 있다. 그 기후파업이 기후위기 전반에 대한 시민 의식 제고에 기여를 했고, 거기서 끝나지 않고 실천 운동이 다각적으로 펼쳐지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 긍정적인 소개를 포함한 시민 의식의 제고 이 부분을 해주면 좋겠다. 올해 광주 5개 구에서 다섯 개 마을이 에너지전환마을에 선정됐다. 여기에서 에너지 카페가 만들어지고 있고 에너지 협동조합을 만들고 있다. 시민 참여 부분, 분위기가 상당히 활성화 되고 있는 것들, 어떻게 시민들이 구축하고 있는지 보여줄 수 있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든다.

- 류한호 위원장 : -오늘의 업무 보고 관련하여 다양한 제언을 해주셨다. 제언 내용을 잘 정리하여 프로그램이나 전체 운영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란다.
- 김수형 위원 : -오늘 보고를 듣다 보니 시사보도 데이터 뉴스라던지, <2030 호남의 미래지도>를 꼭 챙겨보고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다. 아까 오후 1시 반에 광주시에서 시 뉴딜 프로그램에 참가하고 왔다. 패널 토의에 참가해 한 얘기 중에 광주에서 많은 일이 벌어지고 있다. 광주에 기대를 하고 있다. 광주가 탈바꿈하고 있는 것들이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 일에 비해 훨씬 과장되어 있는 것 같다. 외부에서는 광주에 대하여 좋게 평가하고 있다. 정작 내부의 구성원들은 잘 모르고, 잘 되고 있는지 고민이 많고 그런 것 같다. 그래서 일단은 필요한 것이 내부 구성원끼리의 정보교환이나 홍보, 이런 것들을 지역에 있는 언론이 해주는 게 좋겠다. 저만 해도 광주시나 시클러스터사업단에서 하는 일들을 일일이 모른다. 전남대에서도 그 사업과 관련된 일들이 있는데 전달할 기회도 없고. 제일 중요한 우리 시민들이 관심을 갖고 참여를 해야 하는 데 그럴 기회는 더 없다. 제가 제언을 드리고 싶은 게 TV나 라디오에서 일주일에 한 번씩이라도 광주시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시민들에게 알리는 꼭지를 낼 수 있는 여지가 있는지 검토해주시면 좋겠다. 굳이 여기에서 기획하고 고민할 필요 없이 담당하시는 분들을 모셔다가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간략히 소개해주는 식으로만 해줘도 많은 도움도 될 수 있을 것 같다. 광주MBC가 그런 역할을 해줬으면 하는 생각이다.
- 김요수 위원 : -주민들은 열심히 분리수거 했는데 매립할 땐 다시 혼합 매립하는 현장을 취재하는 뉴스에 주목했다. 이 뉴스는 제 기억에 1년 전에 했는데 그것을 잘 지켜지는지 살펴보는 확인 뉴스쯤 된다고 할까. 언론이 지켜보고 있다는 메시지를 주는 것이기도 하고 언론의 기본 기능 가운데 하나인 감시가 돋보이는 뉴스였다. 이런 것에 대한 이야기를 사람들이 많이 하는 것 같다. 행정 시스템이나 시설 시스템이

갖춰지지 않았다, 그래서 시민들의 분리수거는 늘 하나하나 한 짓이 되고 그게 1년 전이나 지금이 마찬가지라는 것이다. 그걸 감시하는 시민들조차 잘못이 계속 되풀이되니까 그게 당연하다고 생각해버린다는 이 대목도 뉴스에 꼭 집어넣은 것이 좋았다. 보통 이런 일이 발생하면 행정 담당자들은 항상 두 가지 이야기를 주로 한다. 하나는 대책을 마련하겠다, 두 번째는 인력과 예산이 부족하다. 그런데 일년 전 뉴스를 찾아보니 그렇게 했고 이번 취재에도 답변은 변한 게 없는 것 같다. 그냥 넘어가기 쉬운 일들을 잡아서 이야기해주는 게 참 좋았다. ‘악의 평범성’이 우리 주변에 안착하는 모습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든다. 뉴스 끝 멘트에 팩트와 풍자가 묻어있는 “악속도 매립장에 묻힌다”는 멘트가 좋았다. 잘못에 대해 경각심을 갖게 하는 뉴스는 좋은 뉴스라고 생각이 든다.

○ 양초롱 위원 : -어려운 여건 안에서 언론 보도나 콘텐츠가 쉽지만은 않다. 그럼에도 광주MBC가 미래 방향을 고민하는 콘텐츠가 나왔으면 좋을 것 같다. 그중에서 제일 큰 부분이 기후위기에 대응해서 광주시가 어떤 부분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정책하고 일반시민들과의 관계성을 어떻게 풀어나가고 있는지, 실제 시민들은 이 부분에 얼마나 공감대를 가지고 자신의 방법들을 고민하고 있는지 이런 부분을 거시적으로 갖고 거기에 적합한 어떤 사례, 좋은 사례를 보여줄 수 있는 부분으로 접근하면 좋지 않을까 한다. 이번 선거를 앞두고 특히 정책 방향 설정이 돼있더라도 분야별로 식품위생이나 공공장소라던가 특히 교육분야 관련된 분야에서 어떻게 대응을 하고 있는지 이 부분하고 시민들이 정책에 기반해서 준비하고 실천해야 하는지 부분을 가이드라인이 나올 수 있는 형태나 캠페인 형태 등 이런 부분들을 다각적으로 고민해야 되는 시점이 아닌가 한다.

○ 이상석 위원 : -<윤근수의 시사분석> 관련해 정말 칭찬을 드리고 싶다. 정말 잘 만든 프로그램이다. 이게 사실은 격려보다는 비난이 많았을 것 같다. MBC쪽으로 전화가 많이 왔을 것 같다. 그래도 아쉬웠던 부분은 학동재개발사업구역의 정확한 진단과 해법에 있어서 뉴스가 보완을 하든 그 부분에 대하여 따로 집중적으로 다룬다면 구체적으로 해주면 훨씬 나왔을 것이다. 광주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지분 쪼개기가 민주당인데 그게 50년 동안 토호 세력과 일체감을 이루어 달려가고 있다. 약 40 몇 건의 재개발 사업이 광주에서 벌어지고 있는 부분들이 광주시청과 정치권의 철학도 없었고 업자들의 이익과 광주시민들의 욕망이 결합돼 만든 것인데 아쉽다. 구체적으로 충격이 가게 했으면 좋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든다.

-지난번 이야기를 하고 싶는데 궁금하고 몰라서 여쭙는다. 터미널 앞에 지나가다가 깜짝 놀랐다. 시장 여론조사에서 현역 국회의원이 나왔다. 이분이 출마 선언을 했었다. 어떤 기준으로 나왔다. 출마를 밝힌 분이 들어가는 건 정당하다 할지라도 현역 국회의원으로 당선된 지 얼마 되지 않은 사람이 나왔다는 게 납득이 안된다. 지방선거에서 계속 나올 수 있는 부분인데 뭔가 기준점이 명확해야 할 것이다.

-지금 캐스퍼 사건이라고 이용섭 시장이 취득세를 감면해주겠다고 하는 게 해프닝으로 끝날 거 같다. 이것은 특별한 혜택이다. 캐스퍼를 사지 않은 사람들에게도 공평하게 취득세 감면을 줘야 하지 않나. 특정한 업체 것을 사주면서 거기에 대한 취득세를 면제해 주는 것을 특별조례를 만들어 진행한다는 것은 예산을 보는 사람 입장에서 곤혹스럽고 곤란한 부분이 있다는 말씀드린다.

-MBC는 훨씬 덜하지만 일반 방송이나 언론이 많이 쓰는 게 시민단체 관계자,

시청 관계자, 관계자라는 말을 많이 쓴다. 혹시 기자의 생각은 아닌지, 인터뷰 대상의 폭을 넓히거나 그렇지 않다면 중지하고 지양해야 하지 않나 싶다. 관계자가 그렇게 인터뷰할 것 같으면 안 하는 게 낫지 않을까. 훨씬 더 그런 쪽에 신경을 많이 쓰고 구체적 팩트를 가지고 움직일 수 있도록 이 부분에 대해 뉴스가 많이 나왔으면 좋겠다.

- 정은진 위원 : -이상석 위원님 얘기 공감하는 부분이 많다. 외국어와 외래어가 범람하는 미디어 환경, 방금 말씀하신 관계자라는 이름으로 쉽게 인터뷰가 되고 있는 관행적인 것들 굉장히 공감이 됐다.

-탄소중립 부분에 대해 잠깐 언급을 했는데, 여러 위원님 얘기하신 분리배출, 분리수거 이 부분에 대해 잠깐 언급하겠다. 1991년~1997년까지 환경담당 기자를 했는데, 그때 이미 분리수거 제도화되기 시작했다. 분리수거라고 하는 행정적인 여러 가지 움직임이 등장한 가장 큰 이유는 자원 재활용을 위한 전 단계 작업으로 분리배출과 분리수거가 나온 것이다. 30년이 지나가고 40년이 가까운 이 시점에도 혼합 매립이 되고 있다면 이게 행정만의 문제일까라는 생각이 든다. 이것이 정말 경제적으로 리사이클링 해서 나온 것이 업자에게 경제적으로 이익이 있었다면 분명히 자리를 잡았을 것이다. 단순히 행정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점에서 그 부분에 대해 조금 더 구체적인 접근을 해주는 보도가 나오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기후위기대응 이것과 관련해서 2050년까지 탄소중립 이 부분이 전 세계적인 과제인데 광주시가 2045년으로 목표를 앞당겼다. 선언에 그치지 않고 정말 실천적인 과제가 될 수 있도록 어떤 구체적인 노력이 기울여지고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한 집중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올 상반기 내내 광주시에서도 에너지자립 2.0 이것을 만들기 위한 검토가 이루어지고 있었다. 9월 18일 에너지파크 개소식을 하면서 멋지게 발표하려고 했는데 못했다. 왜 못했는지 언론에서 관심을 갖고 취재를 해주면 좋겠다. 시민들이 2045 탄소중립과 에너지자립을 생활 속에서 어떻게 실천할 수 있는지 공감대를 넓혀가고 실천 폭을 넓혀갈 수 있도록 관심이 필요하다. 말씀드렸다시피 시민 아르백 운동이 활발하게 펼쳐질 조건을 갖추고 있는데 어떤 형태로 이뤄지고 있는지를 먼저 취재해서 보여준다면 활동폭을 넓히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재미있는 활동이 많이 벌어지고 있다. 제로웨이스트나 에너지 카페에서 탄소 발생 줄이기 운동 같은 것을 재미있게 구성하면 도움이 될 것 같다.

- 박수민 위원 : -<윤근수의 시사본색> 도시계획 이슈는 굉장히 좋은 아이템이었고 지역에서 아파트 문제에 대해 단편적인 취재만 있었고 시민단체의 토론회에서 이런 정도의 집중은 경험하지 못했다. 특히 단순 문제 제기가 아닌 시민들의 의견이 반영되는 도시계획은 어떻게 할 수 있는가 하는 이야기가 있어 좋았다. <시사본색>이나 언론의 역할이 무엇인지 생각했을 때 단순히 정보 전달이 아니라 비판적인 어떤 객관적인 시각을 시청자가 느낄 수 있도록 메시지가, 자극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런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프로그램 중에 <윤근수의 시사본색>은 그런 점에 긍정적이었으나, <오매 전라도> 뉴스 읽어주는 남자 코너에서 시와 관련한 뉴스 보도가 있었다. 그 발언을 하는 과정에서 광주광역시의 입장인데 광주광역시라는 입장 없이 그냥 긍정적인 평가의 멘트가 뉴스 읽어주는 남자가 이야기를 했다. 시청자가 들어보기에는 그럼 시사업이 좋은 건데 중앙정부 예산이 막히면서 문제가 있구나 하고 편파적인 시각을 갖

게 될 수밖에 없는 멘트가 나왔다. 그리고 MC 두 분의 피드백 역시 이 사업은 굉장히 광주광역시의 미래를 발전시킬 수 있는 사업이라는 피드백이 나왔다. 보도국에서 하는 뉴스가 아니기 때문에 예능적 요소가 가미되어 뉴스가 나온 걸 감안하더라도 뉴스 읽어주는 남자에서 선정하는 뉴스의 기준이 무엇인지 이것이 반드시 지역민이 놓치지 않고 봐야 하는 뉴스를 선정한 것인지. 아니면 이해하기 쉽게 하기 위한 것인지 성격을 분명하게 하지 않는다면 이런 편파적인 보도라고 볼 수밖에 없는 요소들은 분명히 있다고 생각한다.

-홈페이지 개편이 좋았다. 홈페이지 하나하나 들어가 봤는데 전체적으로 기자별, 지역별로 분류돼 보였다. 사실 뉴스는 한번 보고 넘어가는 게 아니라 그 뉴스를 다시 찾아보는 분도 많다. 그런 면에서 홈페이지 개편은 긍정적이다. 상단에 변동되는 뉴스의 선정 기준이나 대부분이 뉴스 중심으로 홈페이지가 개편돼 있는데 시사 보도 중심으로 힘을 실기 위해 개편을 한 것인지는 잘 모르겠다. 뉴스정보, 시사보도 중심으로만 개편돼 있어서 다른 예능이나 채널에 디자인이 연동돼있다는 느낌을 받기가 어려웠다. 그 부분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들었다.

-시청자 의견 게시판 답변의 내용도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게시판 글을 쓰는 것 애정 어린 시청자다. 이들에게 어떻게 메시지를 주는가가 신뢰감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담당하시는 분들이 신뢰성 있게 진정성 있게 담아주면 훨씬 시청자들이 내 이야기에 대해 이렇게 반응을 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느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었다.

○ 류한호 위원장 : -오늘 여러 분이 시 관련해 말씀해주셨다. 시가 광주에서 예타면제 사업으로 선정된 게 2년 반이 지났다. 처음에는 광주가 한국의 미래를 선도하는 길잡이 역할을 하는 대단한 도시구나 하는 이미지로 시작하였는데 요즘에는 아주 조용해졌다. 시의 홍보물에 좀 나올 뿐이지 어디에서 시를 본격적으로 얘기하는 게 잘 안 보이는 상황이다. 이거 혹시 실종되는 게 아닌지 정말하게 체크해 주면 좋겠다.

-재활용 쓰레기 마구잡이 매립한다는 뉴스를 저도 얘기할 수밖에 없다. 보통 우리가 뉴스를 보면 공공기관이나 정부에서 발표한 보도자료에 기반하여 뉴스를 쓰고 취재하는 식으로 많이 하는데, 이 뉴스는 기자가 냄새나고 지저분한 쓰레기를 직접 현장에서 만져가면서 생동감 있게 취재해서 보도했다. 그것은 기자의 노력이고 어쩌면 보도팀 공동 노력의 결과라고 생각한다. 이런 게 유익하고 사회적으로 좋은 결과를 가져오고, 그리고 재미도 있고 충격도 많이 주고 사회적 개선 효과를 가져온다. 이런 뉴스가 좀 더 많아져야겠다. 지역사회에서는 심층적으로 들여다보고 해결해야 하는 문제들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해결책을 모색하고 제시하는 뉴스가 되면 좋겠다.

-<오매 전라도>에서 보면 뉴스 읽어주는 남자, 유익남 이 코너가 <오매 전라도>의 품격을 상당히 높여주는 역할을 하는 것으로 보인다. 부드러운 생활정보 중심으로 가는데 이 코너는 좀 더 오락과 정보를 결합한 형식으로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진행방식은 좀 딱딱하지만 그 내용이 객관적이고 사실적인 느낌을 준다. <오매 전라도>와 색깔이 다른 요소인데 재미있게 잘 꾸몄으면 좋겠다. 지역사회 문제에 대해서 이와 같은 방식으로 접근하는 것을 좀 더 확장시키면 좋겠다.

-위원님들의 의견제시에 대해 답변을 듣는 시간을 갖겠다.

○ 박수인 시사보도본부장 : -지자체 예산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 따로 기사를 지정하여 연

락을 드리도록 하겠다. 어떤 부분이 문제인지 구체적으로 취재해보도록 하겠다. 낭비를 하고 있다는 것인지, 구체적으로 해주시면 관련해서 취재를 해보도록 하겠다. 토건 세력과 민주당이 결탁했다는 지적을 해줬는데 지난번에도 지적을 해주셨다. 저희가 여력이 안 돼서 취재를 못했을 수도 있는데 이 역시 구체적인 사례를 알려주시면 취재를 검토하겠다. 그리고 워드 코로나 같은 외국어 사용에 대해서 저희는 일단 일상어 이게 방송어에 적합하다고 배웠다. 관행에 매몰되지 않고 용어를 잘 쓰고 있는지 다시 한번 고민하도록 하겠다. 인공지능사업 단지 관련해서 광주시의 정책 등 궁금해 하는 부분이 많은 것 같다. 이것에 대해서는 취재해서 시청자의 궁금증을 해소하도록 노력하겠다. 전문가들 와서 토론하고 이런 건 많이 안보더라. 이쪽 분야에서 전문적인 식견을 가지고 대중적으로도 인기가 있는 분을 섭외했다. 인공지능이 무엇인지, 삶을 어떻게 변화시키고 있고, 우리 사회에 어떤 부분에 진입되고 있는지 설명이 되고 이해가 되도록 꾸렸다. 탄소중립, 에너지 자립 일반 시청자들은 잘 모른다. 이런 것을 설명해주고 이해를 돕는 것으로 창사특집을 준비했다. 이번을 시작으로 해서 앞으로 시에서 하고 있는 정책이나 이런 것을 꼼꼼히 챙겨보겠다. 정은진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좋은 아이템인 것 같다. 시민들이 마을 단위, 개인 단위로 참여하고 있는 좋은 것 같다. 이걸 재정적인 문제와 연결이 될 수도 있는데,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내년에 캠페인으로 해봐도 좋겠다는 생각이 든다.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보겠다.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하고 있는 내용이 재미있는 게 많을 것 같다. 콘텐츠로 만들 수 있는 부분에 대해 검토하겠다. 분리수거 관련하여 제가 사실 이 아이템을 반대했다. 동구 남구뿐만 아니라 다른 데서도 다 빚어지고 있는 현상이 아닌가 한다. 위원님들의 좋은 반응을 보니까 보도하기를 잘했다는 생각이 든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노력하겠다. 학동 재개발 사업 관련해서 이걸 기획한 이유는 학동 재개발에서 붕괴 참사에서 시작했다. 광주가 도시계획이 있는가, 사실 도시계획 문제는 작년에 한 번 했던 내용인데 다시 한 번 되새김 하고 그 뒤에 팩트를 붙여서 분석했다. 뉴스보다 시간이 있고, 일요일 아침에 전달하는 방식이 좋았던 것 같다. 반응이 있는 것 같고 앞으로도 광주 도시계획 문제에 대해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하겠다. 게시판의 답변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홈페이지를 관리하는 부서가 따로 있고, 답변은 실무 부장이 직접 올리는데 게시판에 들어와서 글 올리는 애정 어린 시청자들이다라는 말이 중요한 말씀이다. 성실하게 답변하도록 하겠다.

- 이상석 위원 : -정은진 위원님이 말씀하신 2030년 중간목표 실천계획 분석적 점검은 사실 예산하고 조직만 보면 금방 알 수 있다. 광주시가 예산을 얼마나 수립했느냐, 합당한 조직이 있느냐를 보면 충분히 점검할 수 있는 내용이다. 로드맵을 보면 알 수 있다. 로드맵이 아직 안 나왔으니 지표를 어떻게 만들어야 하는지 지표를 실행할 예산과 사람이 있느냐 하는 걸 따지는 거다. 그래야 실현이 가능한 부분이다.
- 정은진 위원 : -한 말씀만 더 드리고 싶다. 창사특집으로 <2030 호남의 미래지도>, 거기서 시와 에너지를 다룬다고 했다. 일반시민들이 개념을 몰라서 가장 초보적인 데에서부터 시작하겠다고 하였는데 좋은 접근이라고 생각이 든다. 하지만 그렇게 하다 보면 놓칠 수 있는 것이 현재 쟁점이 되고 있는 것들, 이것까지 다뤄주면 좋겠다. 탄소중립이 결국은 화석원료를 줄이자는 건데 화석연료를 줄이다 보니 에너지난이 발생했다. 다시 원전을 늘려야 한다고 얘기가 나오고 있고 LNG에서 추출한

수소 얘기가 나오고 있다. 탄소중립을 다루면서 반드시 수소경제 부분하고 소핵원자로, 민주당 대표가 계속 얘기하고 있다. 과연 이것이 해법이 될 것인지 등등에 대해 꾸준히 취재해주길 기대한다.

- 박수인 시사보도본부장 : -이번에 창사특집에서 이 부분까지 다뤄주기는 어려울 것 같고 방금 말씀하신 수소연료전지나 이런 부분에 대하여 한전의 경영사업본부장과 만나 얘기할 기회가 있기도 했다. 이 부분을 할 수 있는 힘이 갖춰지면 해보자고 얘길 했었다. 그때 취재단계가 되면 위원님들 말씀 조언해주시면 감사하겠다.
- 윤행석 콘텐츠본부장 : -<오매 전라도> 프로그램 뉴스 읽어주는 남자, 유익남 관련해 지적해주셨다. 애정 있게 봐주셔서 감사드린다. 제작진에게도 내용 확인을 했고, 데일리 뉴스 큐레이션 이런 걸로 생각하시면 될 거 같다. 전달자인 아나운서의 개인적인 시각이 아닌 당일 오전 우리 지역의 그날 뉴스를 모아서 제작진이 선정한다는 것이고, 논쟁적인 이슈보다는 정보성, 미담, 생활 밀착성, 지역뉴스를 우선적으로 선정한다. 그 다음에 알아두면 좋은 시사용어를 쉽게 풀어준다. 개인적 견해나 평가는 배제하고 최대한 시청자, 주부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을 전달한다는 게 내부의 원칙이다. 경우에 따라 민감한 소재, 주관적이거나 편파적인 아이템은 주의할 필요가 있겠다 생각이 들어서 전달하고 제작에 반영하도록 하겠다. 이상석 위원님, 지방자치 30년 지적을 하셨다. 자치분권대학 주관사는 아닌데 광주MBC가 콘텐츠의 선택과 집중을 하는데 있어서 우선적으로 욕심내서 제작할만한 방향에 대한 아쉬움이 있다. 재원은 광고를 하지만 공영방송의 색깔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아쉬움과 한계를 말씀드리는데 수밖에 없다. 참고로 부산MBC 대구MBC 경우 <빅벙커>라는 프로그램이 있다. 타 지역 MBC에도 그런 제안이 있었다. 그런데 현실적인 제작 여건, 재원의 상황 이런 것 때문에 하지 못하는 안타까운 상황이다. 아쉬운 현실을 말씀드린다. 언어에 대한 부분을 말씀하셨는데 디지털 시대를 살고 있는데 언어습관, 언어표현들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콘텐츠 속에서 얼마만큼 선도 내지는 할 수 있는지 생각을 하게 된다. 현실적 한계를 생각해보게 된다. 한글날에 저희가 화면 우상단에 '문화방송', 자체제작 프로그램에는 '광주문화방송' 로고를 해본적이 있다. 그거 자체가 생경하고 새로운 느낌을 줄 정도로 우리가 외래어 범람 속에서 살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우리말 겨루기>라는 프로그램이 있고, 판소리를 대중화하려는 프로그램이 있듯이 그것이 안되기 때문에 그런 프로그램이 있다고 역으로 생각한다. 이것에 대해 선도적으로 풀어보면 어떨까 선불리 하기 어려운 그런 부분이 아닌가 생각이 든다. 정은진 위원이 말씀했던 탄소중립에 대한 부분이라던가 구체적인 마을 이야기는 뉴스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오매 전라도>와 같은 프로그램에서도 충분히 다룰 수 있는 좋은 아이템이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반영할 수 있도록 해보겠다.
- 황한영 경영인프라본부장 : -게시판 말씀해주셨는데 경영심의팀에서 관리하고 있다. 좀 더 신경 쓰도록 전달하겠다.
- 김낙곤 사장 : -오랜만에 시청자위원회 열었다. 정말 소중한 시간이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광주문화방송 공영방송에 시청자를 위한, 지역사회를 위해 어떤 조언과 얘기를 해주면 도움이 될까 고민을 많이 해오신 얘기이고 각 제작현장, 시민과 상대하는 관련 부서에 큰 도움이 되는 것 같다. 다시 한 번 고맙다는 말씀을 드린다. 오늘 말씀을 듣다 보니 시 전문가이신 분들의 현장을 방문해서 이해해 보는 시간도 어떨

까. 에너지 분야도 그렇고 문화예술 콘텐츠 분야도 그렇고 그런 생각이 들었다. 코로나가 극복돼 가는 코로나 이후 시대가 된다면 무엇보다 대면이 좋은 건 서로 만나 식사도 하고 이 회의 이후에 이야기를 이어가는 시간이 있으면 좋겠다. 다음번엔 위원장님과 잘 이야기를 하여 회의 이후에 이야기를 가질 수 있는 시간을 가지면 좋겠다. 오늘 여러 말씀 많이 해주셨는데 도움이 되고 발전하는 방향이 되도록 더욱 노력하겠다. 고맙다.

- 류한호 위원장 : -이것으로 10월 시청자위원회를 마치겠다. 감사드린다.
- 서면 제출의견(최영호 위원) : -<오매 전라도> “설마 나도? 코로나 블루의 모든 것” 코너(10월 6일) / 치료가 필요치는 않은 수준이나 장기간 지속되는 코로나19로 인해 느끼는 우울감, 무기력감인 코로나 블루를 주제로 시청자로 하여금 “혹시 나도?”라는 의문을 갖게 하며 몰입을 이끌었다. 그리고 심리전문가를 통해 코로나 블루에 대한 주요 증상 설명 및 코로나19 상황 전후의 심리 질환의 증가를 객관화된 데이터로 전달하여 내용의 신뢰성뿐만 아니라 현 상황을 모두가 함께 견뎌내고 있다는 공감대 형성에 기여했다고 판단된다. 이후 자가 진단을 통한 본인의 상태 확인 방법과 코로나 블루 의심 증상 및 예방 방법에 대해 전하며 시청자들이 즉시 따라 해볼 수 있는 실용적인 정보 전달도 훌륭하게 이루어졌다고 생각한다. 특히 다소 어두울 수 있는 시대상을 담으면서도 현황 전달에 그치지 않고 가족, 친구, 이웃 등 공동체의 소중함을 일깨워주었다. 이에 시청자에게 현 상황에 대한 극복 의지와 우울감을 떨쳐낼 작은 희망을 선사했다고 느꼈다.